

주최/주관  프로덕션아이디에이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 ARKO Partners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본 공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입니다.

본 작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CKL스태이지 공간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copyright©2025 by 프로덕션IDA All Rights Reserved.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작 진주
연출 김희영

출연

황세원 박윤정 윤일식 서미영
백혜리 강유미 김희창 김승환
조성현 백지선 민경준 신수호
강주희 장익준 한채민 곽진우

Greeting

작가의 글 | 진주

"봐라이, 얼마나 다행이어. 살아있잖애. 우리 지금. 뜨겁게 익어가고 있잖애."

저는 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빵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대 무렵 한 도시의 역사에 관해 공부하다가, 우연찮게 빵집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었고 해방 전부터 운영되던 빵집들이 해방 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만약에 해방전부터 시작하여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사람이 계속 운영하던 빵집이 남아 있었다면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해방 직후 군산을 채운 것은 전국적인 홍수로 인한 열병의 유행, 기술과 물자의 부족, 직업과 가족을 잃은 이들, 강제 노역 이후 귀환한 조선인들, 버려진 어떤 일본인들이었습니다. 피폐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대의나 명분이 없어도, 서로의 손을 '그냥' 잡아주는 용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혼란기에도 빵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꾸었던 꿈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힘이 될 수 있는 않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에서 이 이야기는 출발했습니다. 빵은 어쩌면 꿈과 기대,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힘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상은 점차 구체화되며 체홉과 더불어 펼쳐졌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947년의 동백당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미래, 그 이후에 찾아올 전쟁에 대한 비극을, 하지만 그렇다고 재건의 노력, 꿈꾸는 순간들이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참혹한 때로는 기쁜,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번갈아 찾아오는 것이 삶일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을 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고요. 동백당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갔을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 여기, 무대 위에서 만나는 동백당의 순간들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맛있게 드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 | 진주

연극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공동창작)>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열녀를 위한 장례식>
<클래스> <ANAK>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공동창작)>

뮤지컬 <파랑새>

창극 <봄을 안고 온 아이> <눈의 여왕> <검은 늑대(작/연출)>

오페라 <미녀와 야수>

수상 2023 이집트 살름엘세이크 국제연극제 대상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2023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본선 대상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2022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7 <클래스>
2021 두산아트센터 DAC아티스트 선정
2018 정동극장 창작ing 대본부문 선정 <정동구락부-손탁호텔의 사람들>
2015 아동창작희곡상 <무지개섬 이야기>

Greeting

연출의 글 | 김희영

"빵이 좋은 건 숨 쉬니까 그런 거 아니야. 좋은 빵은 숨을 쉰다고."

무대 위에는 밀가루 포대가 쌓여 있고, 쟁반에 담긴 빵들이 분주히 오갑니다. 중앙에 자리한 커다란 화덕에서는 갓 구운 빵이 끊임없이 나오고, 자전거를 탄 배달부는 객석 곳곳의 관객들에게 빵을 배달합니다. 이러한 상상에서 시작된 이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연을 넘어, 관객들과 '맛'과 '향'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출발했습니다.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공간 속에서 관객들은 그 시대의 시간과 사람들의 삶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항구 도시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을 배경으로 1947년 무렵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되었지만,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며 다시 삶의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서로 다른 사연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빵을 만들고, 나누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가진 힘과 연대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작품은 거대한 역사 속 이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시기,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야 했습니다. 작품은 그러한 사회적 변화가 거창한 사건이 아닌,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담아내고자 합니다. 빵을 굽고, 누군가 식탁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이 품었던 희망과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백당'은 오늘 하루를 버텨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서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갈 때 다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
- 연출 | 김희영**
- 연극** <돌박아시, 고이래>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그렇게 산을 넘는다, 사라지지 않는>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환희 물집 화상>
- 영화** <PLAY PLAY PLAY> <60일의 썸머>
- 수상** 2024 양산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 감독상 <60일의 썸머>
2023 이집트 살름엘셰이크 국제연극제 대상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2023 제41회 대한민국연극제 제주본선 대상 & 연출상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2020 제41회 서울연극제 우수상 <환희 물집 화상>

스스로 찾아가는 삶의 가치와 희망을 말하다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은 1947년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을 배경으로, 해방 직후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격동의 시대에 남겨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찾아가는 삶의 가치와 희망을 따뜻하게 그린 작품이다.

삶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벌어진 사회적 변화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드는 모습을 바라보며,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간직하고 있는 소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바라본다.

독립운동가였던 큰 사장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은 돈을 들고 떠난 지 십여 년. 작은 사장 '여왕림'과 수석 제빵사 '공주'는 동백당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물자 부족, 빚 독촉, 대형 제과점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는다. 한편, 일본이 떠나고 직업을 잃은 조선인들, 늙고 병들어 버림받은 일본인까지 마을에 남겨진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소중한 것들을 모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글과 제빵 기술을 배우며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고 서로 연대하며 용기를 얻는다.



▲ 2024 리딩 쇼케이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유경오



▲ 2024 리딩 쇼케이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유경오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은 일제 수탈의 항구이자 첨단 문화의 창구였던 '군산'과 그곳의 특별한 식문화로 자리 잡은 '빵'을 '전환'이라는 커다란 비유로 삼고, 인간의 욕망과 성장을 따뜻하게 담아낸다.

항구 도시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은 해방 직후의 혼란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야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시간을 담아낸 작품이다. 일제 수탈의 항구이자 새로운 문화가 가장 먼저 스며들던 도시 군산, 그리고 그곳의 특별한 식문화로 자리 잡은 '빵'은 작품 안에서 시대의 변화와 인간의 욕망, 희망을 상징하는 매개로 기능한다.

작품 속 인물들은 저마다의 상처와 결핍을 안은 채 '동백당'에 모여든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이들은 함께 빵을 만들고 나누며 조금씩 관계를 맺고, 협동조합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해 나간다. 작품은 거대한 역사 속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며, 시대의 변화가 개인의 일상과 관계를 어떻게 흔들고 변화시키는지를 그려낸다.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은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이다. 쉽게 외면하고 갈라서는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끝내 다시 손을 맞잡는 평범한 용기에 주목한다. 작품은 거창한 영웅 서사 대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삶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의 온기를 담담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연출은 향과 맛, 그리고 공간의 감각 까지 무대 위로 불러낸다. 객석 가득 퍼지는 빵 냄새와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풍경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관객들이 작품 속 시대의 공기와 공동체의 온기를 함께 체감하도록 한다.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은 결국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상실과 혼란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꿈꾸고, 끝내 함께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Synopsis

줄거리

빵 하나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면
제대로 키워지겠지!



1947년, 군산의 작은 빵집 '동백당'

독립운동가였던 큰 사장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은 자금을 들고 떠난 지 십여 년.

작은 사장 '여왕림'과 수석 제빵사 '공주'는

전기오븐 하나로 밤낮없이 빵을 구워 가며 동백당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주'는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만 사람들에게 치즈케이크는 낯설기만 하고,

설상가상으로 동백당 인근에 대형 신식 제과점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마지막 남은 오븐까지도 빚쟁이한테 빼앗긴 그때,

마을 사람들이 동백당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동백당에는 다시 빵 굽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Character

인물 관계도



개항의 빛과 그림자 속에서 성장한 땅, 군산

군산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조선시대부터 전국 최고의 곡창지대인 호남평야의 세곡이 모이는 군산창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군산진이 설치된 경제, 군사적 요충지였다. 1899년 5월, 군산항 개항과 더불어 해안 일대에 조계지(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 통상하며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지역)를 설치하였다. 대한 제국은 군산 조계지가 일본에 독점되지 않도록 공동 조계지로 정했으나, 개항 이후 군산은 일본제국주의의 필요에 따라 개발되며 쌀 수출항으로 전략하였다. 식민지 수탈 및 일본의 군사, 경제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주요 기지로 이용되면서, 서해안 중부권의 항구도시로 왜곡된 성장을 하게 되었다.

군산 조계지의 형성(1899~1914)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가옥과 묘지가 철거되고, 공용지에서 제외된 구역은 경매로 거래되었다. 일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부를 축적하는 사이, 농민, 지식인, 자산가들은 농토를 빼앗기고 쫓겨나 도시로 밀려들었다. 군산의 메인 스트리트인 본정통(本町通)을 중심으로 관공서, 은행, 회사 등이 들어선 상업, 업무지구가 형성되었고, 동남부의 군산역 부근에는 정미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지역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도로와 건물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군산항에 운반되어온 쌀의 하역 작업을 했던 조선인들의 거주지는 조계지 밖 산기슭이었다. 이러한 도시 개발의 이중구조는 일본인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정비와 더불어 민족적, 계층적으로 심화되었다.¹⁾

군산은 식민지 거점도시로서, 인구·경제·산업 등 가속적인 성장을 보이며 소비시장을 형성했고 해방 후에 일본인들이 귀국하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에는 지역 편향적인 국가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하여 소외되며 도시의 발전이 침체²⁾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화력발전소 준공, 간척사업 및 국가산업단지들이 착공되면서 도농통합형 도시³⁾로 자리잡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해안 개발사업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후에는 산업적 측면에서 정체되었다가 도시 정책이 산업시설에서 문화 중심으로 선회하며 다시 부흥하기 시작했다.⁴⁾

1)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의 역사문화",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2025.01.25. 요약 및 재구성.

2) 김영정 외, 국가의 정책방향과 지역발전의 구조변동: 군산시 및 주변지역의 성장과정 사례연구:1913-1993년, 지역과세계 21,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58쪽 참조.

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역사연표",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1.jsp#ghis007, 2025.01.25.참조

4) 오세미나, 거꾸로 읽은 근대도시의 자화상, 군산, 2019 한국구술사학회 창립 10주년 국제학술대회, 한국구술사학회, 2019, 113쪽.

조합, 여럿이 한데 모여 하나가 되어 가는 일



▲일제강점기의 군산항 풍경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30년대 군산대항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식민지 수탈로 몰락한 충청·전라·경상도의 농민과 지식인, 자산가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군산으로 모여 들었고, 이들은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려 했을 뿐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고 차별받는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군산에는 개항 초기부터 부두에서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동 회사와 조합의 성격을 혼합시킨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는데, 1920년대 들어서 3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노동조합이 활동했다. 군산은 노동운동의 중추지대로 불리며, 군산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전국적인 노동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인들은 비슷한 노동에 종사하는 조선인 노동조합을 상호 경쟁시켜 조선인 노동자를 통제하고 임금을 낮추려고 했다. 따라서 군산 노동조합의 가장 커다란 과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조선인들이 협력하여 일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군산 철도노동회와 군산정미인접노동 공동조합은 당시 군산 노동운동⁵⁾을 대표했다.

군산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역사적 패러다임의 전환기마다 변화하며, 혼란과 고통을 버티고 성장해 왔다. 특히 근대 시기 군산은 수탈의 공간이면서도 첨단 문물의 중심지로 기능했다. 우리 근현대사의 복합적이면서도 모순적인 개발의 역사, 그리고 수탈당하던 우리 민족과 전후 피난민의 삶의 애환까지 고스란히 간직한 역동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5) 군산근대역사박물관, "1920년대 노동운동", https://museum.gunsan.go.kr/content/sub04/04_07.jsp, 2025.01.25.요약 및 재구성.

왜 빵인가?

한반도의 ‘쌀’은 무겁고 끈득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식자재이며, 한국인의 정체성이자 ‘한’을 상징하는 민족적 상징이다. 그런 점에서 ‘빵’은 ‘쌀’과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다. 식문화이면서 동시에 기호품 혹은 사치품으로서 욕망을 대변하는 지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태동과 함께 새로운 식문화인 ‘빵’의 문화가 들어왔을 때, 빵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었을까.

빵은 19세기 말 선교사들에 의해 최초로 유입되어, 왕실과 같은 고위층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식품이었으며 서구문화를 들여다보는 창이자, 서구 문화가 유입되는 창이었다. 또,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토착 농업체계의 파괴의 선봉장이자 상징이었다.⁶⁾

오늘날의 한국어 ‘빵’은 일본에서 전해진 것으로, 18세기 일본인들은 포르투갈어 ‘판데로(Pão-de-ló)’를 ‘판’이라 불렀는데, 여기에서 한국어 ‘빵’이 생겨났다. 해방 후 ‘빵’으로 표기법이 정리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일본인이 한성에 대거 거주하면서 일본식 빵이 ‘서양떡’이라는 말을 대체하며 일반에 확산되었다. 19세기부터 시작된 한반도 빵의 역사는 일본에서 개량된 일본식 빵의 도입과 떨어뜨려 설명할 수 없다.⁷⁾

1920년대 이후 조선미(朝鮮米)가 일본으로 대량 유출되면서 식민지 조선인들에게도 빵이 공급되었다. 저렴하고 대량생산된 빵은 간편하고 오래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 학교에서 점심으로 제공되거나 수재민에게 끼니거리로 제공되기도 했다. 1937년 중일전쟁 즈음부터 일본인 위주의 빵제조업에 조선인의 참여가 늘어났다. 군납을 위한 빵 제조에 동원되면서, 1942년경 자료에 따르면 당시 조선인 종사자 수는 일본인의 두 배가 넘었다. 이러한 빵제조업자 비율의 반등은 일본인이 떠난 후에도 빵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⁸⁾

한편, 일제시기 일본인이 경영하던 업소를 그대로 인수받은 경우에는 제반 시설이 갖추어져 경영이 편리하였으나 제과점을 개업하는 사람은 제과 기구를 만드는 숙련공을 찾아야 했고, 기술을 배운 사람이 적어 경쟁이 심했다.⁹⁾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이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는 등 허드렛일을 한 경험을 한 이들이 대부분으로, 전문 제과기술자 역시 부족했다.¹⁰⁾ 대표적인 사례로 군산의 ‘이성당’은 해방 후 도넛을 만드는 작은 가게로 시작하였는데, 일본인이 운영하던 제과점 ‘이즈모야(出雲屋)’가 적산가옥으로 등록되자, 기존 건물의 반을 불하 받으면서 가게를 점차 확장하였다.

6) 김춘동, 한국 빵 문화 변천의 사회문화적 과정,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4호, 2016, 203쪽 참조.

7) 윌리엄 루벨, <빵의 지구사>, 휴머니스트, 2015, 181~182쪽.

8) 위의 책, 193쪽.

9) 오세미나, 해방 이후 제과기구와 기술의 발달을 통해 본 근대문화의 정착 과정에 관한 연구, 건지인문학 21집, 2018, 267~268 쪽 참조.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 생존에서 생활로, 생활에서 꿈으로



▲1910년대 이즈모야 제과점 ©이성달

당시 일본의 조리기구와 신식 기계들을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나무 오븐 제작, 농기구를 활용한 제과 기구 개발 등을 하면서 스스로 제과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자신들만의 전문성을 갖추어, 현재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¹¹⁾

해방 이후 미군의 남한 주둔 또한 빵을 다시 부각시킨 계기가 되었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류층 중에 빵에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해방 후 미군이 제공하는 밀가루와 설탕으로 만든 제과 사업에 반응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¹²⁾

해방 후 일본 사람들이 떠난 공간에서 시작된 한국의 제과 기술자들은 어림짐작으로 감각과 간접 경험에 의지한 채 수도 없는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쳐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빵으로 재탄생시켰다. 이 또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놓지 않았던 끈질긴 삶의 의지의 일부가 아닐까.

10) 위의 책, 280~281쪽 참조.

11) 위의 책, 265~266쪽 참조.

12) 윌리엄 루벨, <빵의 지구사>, 휴머니스트, 2015, 193~194쪽.



동백당은
"우리의 과거이자 미래"이다



Mini Interview

-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함께여서

Cast

출연



황세원 Hwang Se Won

- 연극 <돌박아시, 고이래> <뿔뿌리> <배소고지 이야기>
<넓은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춤춘다>
<바람, 다녀가세요> <환희 물집 화상> 외
영화 <굿 마더> <슬로우 비디오> <퇴마: 무녀굴> <검객> 외
드라마 <에스콰이어> <레이디 두아> <웰컴투 삼달리> <유별나! 문세프> 외
수상 2025 제3회 연복연기상 한국연극인복지재단
2023 제43회 서울연극제 연기상
2016 밀양여름축제 손숙연기상
2006 거창국제연극제 연기상

동백당은
"시장통에 쪼뼬방"이다

박윤정 Park Yoon Jung

- 연극 <비명자들 3막-나무가 있다> <오솔로에서 온 남자>
<작은 아씨들> <갯팅아웃> <노스체(NOSCE)>
<누란누란> <밀바닥에서> 외
영화 <4등> <굿바이 싱글> 외
수상 2022 박정자 연기상
2016 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Mini Interview

-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간절함

동백당은
"기다림"이다.



Mini Interview

-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따뜻함 때문에

서미영 Seo Mi Young

- 연극 <돌박아시, 고이래> <배소고지 이야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지금도 가슴 설렌다>
<전화벨이 울린다> <사랑해 엄마> 외
영화 <남편들> <지옥만세> 외
드라마 <모자무싸> <폭삭 속았수다>
<로스쿨> <눈이 부시게> 외



Cast

출연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같이 반죽하고 빵 만드는 힘

동백당은
"빵을 찌고 나누며
식구가 되는 이야기"이다

윤일식 Yun Il Sik

연극 <동박야시, 고이래> <유원> <배소고지 이야기>
<MAIDOG> <비극보다 더 비극적인> <FBW>
<윙키> <금조 이야기> <배를 엮다> <시간의 난곡> 외

백혜리 Back Hae Lee

연극 <내가 누운 자리> <집 오리와 들오리의 코인로커>
<MAIDOG> <배를 엮다> <이번 생은 참기 힘들어>
<점과 점을 잇는 선으로 이루어진 육면체...> 외

동백당은 "따뜻한 곳, 안식처"이다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마을 사람 모두가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Cast

출연

동백당은
"인류애"이다

Mini Interview

-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처음은 서툴렀어도 빵과 사람을 조금씩 이해하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강유미 Kang Yu Mi

연극 <돌아온다> <가미카제 아리랑> <블루하츠>
<안녕, 후쿠시마> <괜찮나> <좋은 하루!>
<그녀들만 아는 공소시효> 외
뮤지컬 <년센스 너트 크래커>
영화 <돌아온다> <군함도> 외
드라마 <사랑한 후에 오는 것들> 외
수상 2018 서울연극인대상 젊은 연극인상

Mini Interview

-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서로 믿어보기로 했기 때문에

동백당은
"빵 굽는 냄새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한채민

Han Chae Min

연극 <굴> <그때, 변홍례>
<타이타스 안드로니커스> 외

Kim Seung Hwan 김승환

연극 <하복> <마른 여자들> <배소고지 이야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세븐 씽>
<환상회향> <외경> <세기의 사나이> 외
영화 <서울의 봄> <요시찰> <60일의 썸머> 외
드라마 <협상의 기술> <봄밤> <풍문으로 들었소> 외
수상 2015 신춘문예단막극전 우수연기상



Mini Interview

-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나 혼자 아닌 우리 모두의 조화, 어우러짐의 미학!!!

동백당은 "대가의 슬픔을
견디게 하는 공간"이다

김희창

Kim Hee Chang

연극 <떨뿌리> <억울한 여자> <국물 있습니다>
 <봄의 노래는 바다에 흐르고> 외
 뮤지컬 <빨래> <지하철1호선> 외
 영화 <님은 먼곳에> <김씨 표류기> <거북이 달린다>
 <헬로우 고스트> <붉은 가족> <슬로우 비디오>
 <검사와전> <나의 특별한 형제> 외
 드라마 <마스크걸> <로스쿨>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슬기로운 의사생활2>
 <눈이 부시게> <쌈, 마이웨이> <송곳> 외

동백당은 "방집"이다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모두의 노력!!!!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삶에 대한 의지

민경준

Min Gyeong Joon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어떤 내기>
 <동양극장 1936, 그날 밤>
 <배소고지 이야기> <지는 해의 그림자>
 <태양의 발견> <스위치>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가족의 만찬>
 <가스등> <덤불 속> 외



동백당은 "연대와 상상"이다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사랑

동백당은 "거울"이다

신수호

Shin Soo Ho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보도지침>
 <Would You Be My?> <자취> 외



Cast

출연

동백당은

"피, 땀, 눈물, 환희의
산 역사"이다



조성현 cho sung hyun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내가 누운 자리>
<어느 물리학자의 낮잠>
<출입국사무소의 오이디푸스> 외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동백당을 사랑하는 모든이의
마음 덕분에^^

박지선 Baek Ji Seon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말을 버린 사내>
<이름을 찾습니다> <하녀들>
<마트료시카> <마음의 범죄> 외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지금
우리
뜨겁게
살아있으니

동백당은

"삶의 치열한
해방"이다

동백당은 "우리들의 집"이다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모두 한마음이었기
때문에



강주희 Kang Joo Hee

연극 <킬로컬> <휴가> <킬리만두> 외



Cast

출연

장익준

Jang Ick Joon

데뷔

동백당은
"오뚜기 인형"
이다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한 명 한 명의
때 묻지 않은 진심

동백당은
"가족"이다

곽진우 Kwak Jin U

Mini Interview

Q. 동백당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A. 포기하지 않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믿을 수 있어서

연 극 <홍부와 놀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레미제라블> 외
영 화 <신명> <무무무> <역신전> <금광>
<무자갱> <택배기사 5-8> 외
<검사외전> <나의 특별한 형제> 외
드 라 마 <비밀은 없어> <다시 태어난 여자>
<내 애인은 스무살 연하입니다> <오늘부터 1일> 외
<눈이 부시게> <쌈, 마이웨이> <송곳> 외
수 상 제4회 한중국제영화제 스타오디션 인기상
제1회 고양시 청소년 연기 경연대회 특별상

Design

디자인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무대 스케치



무대 디자이너 | 박상봉

연극 <톨립> <아이들> <바닷마을 다이어리> <배소고지 이야기> <햄릿>
<키리에> <알랜제이(R&J)> <고목> <사운드 인 사이드> 외
수상 제3회 한국문화공간 무대디자인 부분
제53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제50회 동아연극상 시청각디자인상

조명 디자이너 | 김성구

연극 <화성에서의 나날> <셋톱박스> <하미> <애도의 방식> <화전>
<배소고지 이야기> <베로나의 두 신사> <전쟁터의 소품> 외
뮤지컬 <적벽> <작은 아씨들> <쓰릴미> 외
수상 2023 대한민국연극제 무대예술상
2022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2019 서울연극제 무대예술상

사운드 디자이너 | 카 입

연극 <섬 이야기> <당신 좋을 대로> <타인의 삶> <이 불안한 집>
<혁명의 춤>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20세기 블루스> <파랑새> <HIR> 외
무용 <카베에> <Zzz> <이십삼각삼각> <점> <바스락>
수상 문화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음악 부분
Brighton festival "베스트 뮤직 이벤트상" [with The Ice-breaker]
2 BBC Aberdeen University Music prize

Design

디자인

〈동백당: 뽕집의 사람들〉 무대 스케치



분장 소품 디자이너 | 장경숙

연극 <디사이딩 세트> <삼매경> <틀립> <레이디 맥도날드> <시차>
<몬스터 콜스> <간과 강> <멸망의 로맨스> <나는 광주에 없었다> 외

의상 디자이너 | 조현정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말을 버린 사내>
<배소고지 이야기> <여보, 비온다> <평행우주 없이 사는 법>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꽃> <땃글부대> 외
뮤지컬 <도연> <마카롱> <마당을 나온 암탉> 외

영상 디자이너 | 장주희

연극 <그의 어머니> <동박아시, 고이래> <이상한 여린이 연극 - 오감도>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페이스 타임> <GV빌런 고태경>
<신파의 세기> <고고와 도도>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외
뮤지컬 <어른들은 몰라요> <폭풍우 치는 밤에> 외
오페라 <나비부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이상한 날개> 외

무대감독 | 우승권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통속소설이 머 어때서?!> <7Drops: 당신의 눈물>
<낭만궁궐 기담극장> <자기만의 방> <택배왔어요!> 외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춘향전> 외
오페라 <아이다> <늙은 노래의 작표> 외

음향감독 | 이제형

연극 <동박아시, 고이래> <배소고지 이야기>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세븐 썬> <의무계> <아인슈타인의 별> 외
뮤지컬 <귀를 기울이면> 외
무용 <해상명부도 - 해부학교실> 외





Production Credit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출연

황세원 박윤정 윤일식 서미영
백혜리 강유미 김희창 김승환
조성현 백지선 민경준 신수호
강주희 장익준 한채민 곽진우

작 진주

연출 김희영

무대디자인 박상봉

조명디자인 김성구

사운드디자인 카입(Kayip)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의상디자인 조현정

자막디자인 장주희

무대감독 우승권

음향감독 이제형

조연출 이정화

기획 최소연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임서정 김윤지

무대제작 에픽APIC

제작감독 전종혁

미술팀 이현정 채근주 이주는 임종현

제작팀 편운장 김나은 김현 최병조 유철환

조명디자인 어시스턴트 지소연

조명크루 정호진 김소진 이현동 김형진

소품어시스턴트 박진아

홍보마케팅 어라운드 태제

그래픽디자인 정김소리 오승은

사진 이강물 유경오

본 공연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추진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창작주체지원사업에 선정된 공연입니다.

본 공연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CKL스테이지 공간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2025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올해의신작

02.15. ~ 02.23.

증평문화회관

04.10.

정읍사예술회관

04.25.

춘향문화예술회관

06.14.

강릉아트센터

08.24.

2026년

김포아트홀

06.27.

CKL스테이지

07.03. ~ 07.05.



공연예술창작주체
ARKO Partners

남양주 다산아트홀

07.18.

천안예술의전당

11.20. ~ 11.21

Homepage



YouTube



Instagram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 프로그램북

쇼케이스	2021년
초 연	2025년
재 공 연	2026년

발 행	프로덕션IDA
디 자 인	정김소리/오승은
사 진	이강물/유경오
발 행 일	2026.06.01.